

최근 세계 해운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 건화물선 시장을 중심으로 -

〈조 사 팀〉

1. 머리말

작년 말에 급락세를 보였던 국제곡물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곡물 수요 감소와 남미 지역의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의 날씨 악화에 따른 옥수수 식부 지연 등이 악재로 작용하여 곡물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해상운임이 약세로 돌아서서 해외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2007년 해운시장이 호황기를 누렸을 때에는 도입하는 곡물가격(해상운임포함)의 40% 정도를 해상운임이 좌우했던 적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 배합사로 업계는 해운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항시 동향을 파악하고 변동성에 대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사료협회 조사팀에서는 최근 해운 뉴스 및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세계 해운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 해운시장 동향

(1) 건화물선 운임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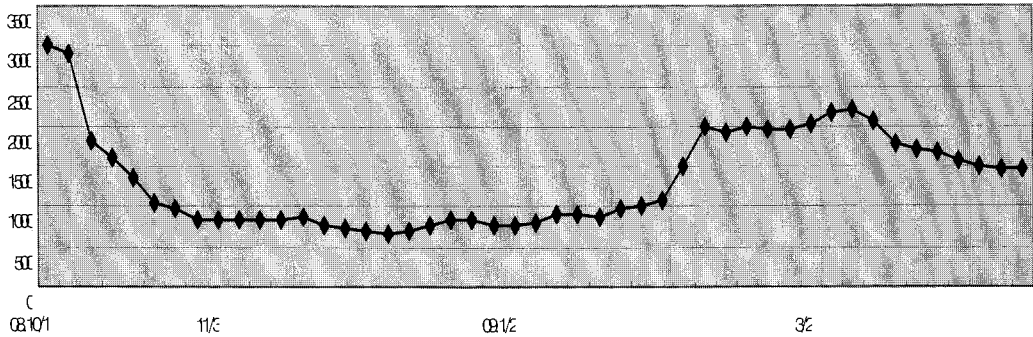
1) 건화물선 종합운임지수

건화물선 시황을 나타내는 건화물선 종합운임지수인 BDI가 지난 해 12월 5일 663까지 폭락하였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여 올해 3월 10일 2298까지 올랐으나,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4월 8일 현재 1463을 기록하며 연속 21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물동량 증가로 인하여 단기간 상승세를 보였던 BDI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 영향과 선박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하여 다시 하락함에 따라, BDI 변동곡선은 'L'자형 이후 변동성이 심한 'W'자형으로 바뀌는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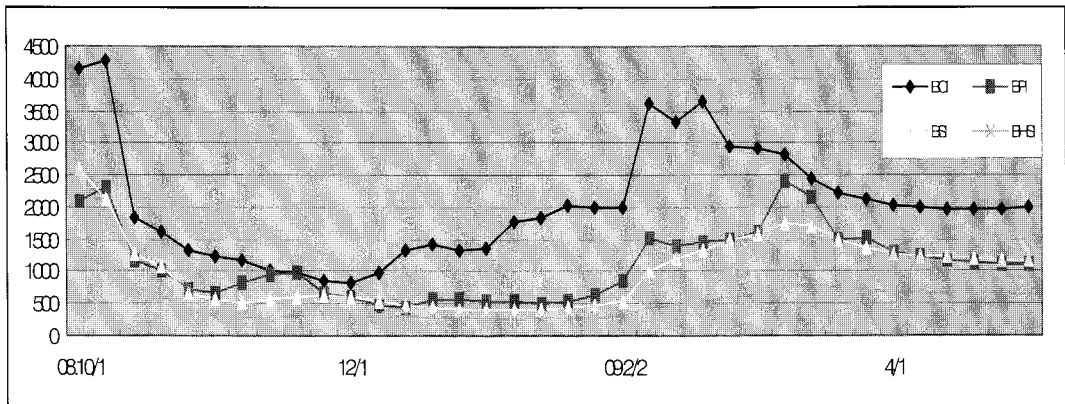
2) 선형별 운임지수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철광석,

<BDI>



<선형별 지수>



석탄 같은 건화물의 물동량이 급감함에 반해 선복 공급량은 증가함으로 인하여 케이프 사이즈 선형의 운임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철광석 비축을 위해 대량으로 철광석을 수입함에 따라 케이프 사이즈 선형의 운임지수는 단기 상승세를 보였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중국 철강업체들의 재고 증가로 인하여 철광석 수입이 감소되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파나마스 사이즈 선형 또한 케이프 사이즈 시장과 동반하여 단기 상승세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화물인 석탄, 곡물 등의 수요 감소에 따른 선복량 증가가 하락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건화물선 시장의 하락세에 핸디막스 사이즈 선형 또한 편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촉진시킬만한 원동력 부재와

해운시황 전망

새로운 수요가 없는 가운데, 선복량만 증가하고 있다.

(2) 신조선 시장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선박금융시장의 위축과 공급과잉에 따른 해운시장 침체로 인하여 신조선 발주량이 부진한 가운데, 기존 발주 물량을 취소하거나 인도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올해 발주된 선박은 총 26척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과 선박금융 위축으로 신조선가 역시 하락세를 보여, 4월 3일자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57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고점 대비 3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만 22포인트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줄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의 신조선가는 140포인트까지 하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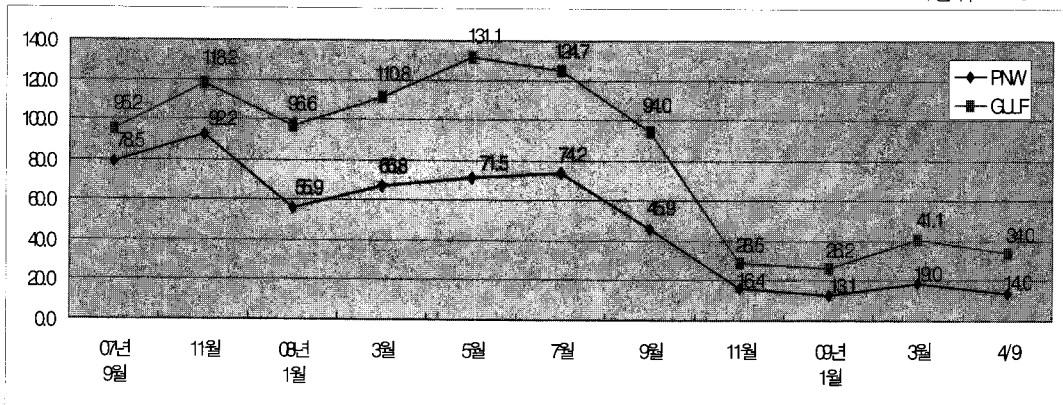
고, 선종별 신조선가도 15% 이상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상운임 동향

해상운임 또한 건화물선 시황에 연동하여 등락을 보이고 있다. 작년말 저점대를 형성 하던 해상운임이 점차 상승세를 보여 올해 3월 초반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반락하여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나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급감하여 선복 공급량이 늘어나는 등 해운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해상운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PNW/GULF)-한국간 파니막스급 해상운임〉

(단위 : US\$/MT)



3. 향후 전망

올해 1분기를 지나며 해운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기의 회복 조짐에 따라 해운시장이 안정화되는 듯 하였으나, 전반적인 해운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 회담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위한 노력을 공조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세계경기의 회복과 해운업계의 수급조절을 위한 구조조정 단행이 해운시장을 부양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의 물동량을 좌우하는 중국과 브라질간 철광석 가격협상의 진척에 따라 해운시장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자재 물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해운시장의 활성화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후선 해체 증가와 신조선 발주 취소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수급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요 선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며 수급 상황의 해소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운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선박공급 과잉이 여전하고 글로벌 경기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건화물선 종합지수인 BDI 역시 1500~20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이지만 2007년과 2008년 상반기까지의 급등세는 보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